

EG 덤핑수입 · 출혈수출 악순환

삼성 · 현대 가동에 SABIC · UCC 저가공세 ... 화섬기업 외산 선호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EG(Ethylene Glycol) 동남아 거래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말 평균 톤당 462달러하던 제품이 올 2월 415달러, 4월 398달러, 7월 380달러, 8월현재 365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3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가격은 로칼가기준 1/4분기 450달러, 2/4분기(5~6월) 430달러, 3/4분기 410달러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의 동남아 수출가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존업체인 호남석유화학이 톤당 400달러 수준으로 일본에 1000톤을, 현대석유화학이 400달러 전후에 3000톤 가량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G 수입가격도 덤핑공세 양상을 보여 SABIC 및 UCC가 올 4/4분기 400달러에 국내시장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 지난 3/4분기 410달러보다 10달러 더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EG가격이 변동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지역적 공급과잉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북미지역이 91년현재 생산 272만9000톤, 수요 223만7000톤으로 53만9000톤이 공급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어 UCC(60만톤)가 아시아시장을 겨냥,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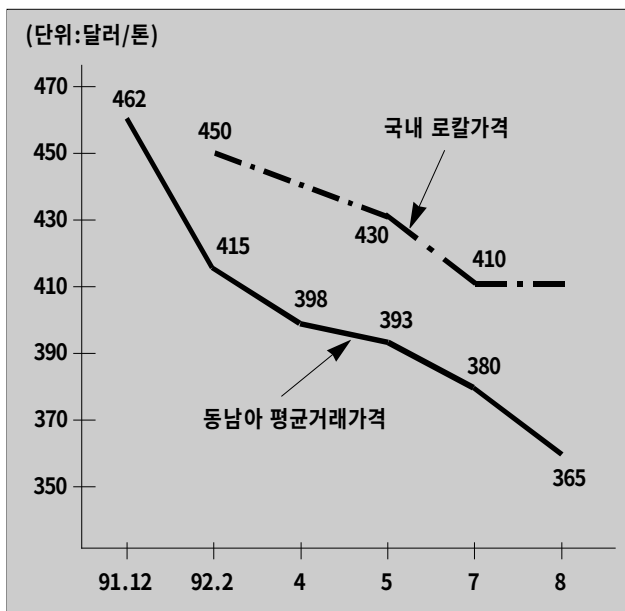
또 사우디의 SABIC도 UCC와 함께 동남아시아 시장 장악을 위해 저가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90년까지 호남석유화학(8만톤)이 독점체제를 구축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삼성종합화학 · 현대석유화학이 각각 8만톤 · 10만톤 규모로 참여, 올해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감에 따라 과당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EG시장은 지난해까지 총수요 48만여톤중 국내공급이 12만4000여톤에 그쳐 35만6000여톤을 Shell 및 SABIC에 의존해 왔으나, 올해에는 양상이 바뀌어 총수요 55만4000여톤중 공급능력이 38만톤에 이르러 46%를 자급할 수 있게 되자 이에 크게 긴장한 Shell 및 SABIC이 국내시장 고수를 위해 가격인하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호남석유화학은 운송시간 단축을 위해 부산, 인천지역에 각각 5000kl

<그림> EG가격추이



주) 국내 내수가격은 고시가기준 34만원

및 2000~3000kl 규모의 탱크를 임대, 수요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국내 공급업체들은 내수판매 돌파구를 모색하는 노력을 전개중이나, 저가 EG의 물량공세에 밀려 화섬업체들이 외산제품을 선호, 가격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EG시장은 저가의 외산 EG는 수입되고 국산 EG는 출혈수출하는 양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EG가격이 바닥권에 들자, Quantum Chemical(200만파운드) · Misubishi를 비롯 유럽 및 북미의 일부 공장이 폐쇄작업에 들어갔으며, 대만의 Formosa는 공장완공 시기를 내년 2/4분기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hell은 동남아시아를 겨냥해 추진중인 4억5000만파운드의 EO/EG 공장건설을 계획대로 95년까지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G는 폴리에스터섬유·필름·보틀칩·화이버칩 및 부동액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의 경우 폴리에스터 섬유업체가 전체수요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BPA(Bisphenol-A)시장이 건축·자동차 경기 위축 및 BPA업체의 신증설로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2/10/1>